

연중 제 31 주 일

기도서 P. 469 A해

제1독서 (말 라1, 14-2, 2.8-10)

제2독서 (테살후 1, 11-2, 2)

복 음(루카 19, 1-10)

#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사람

법 석 규 신부

“너희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태오 23, 11~12)

인간세계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가치 가운데 권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속에 권력을 행사하는 으뜸이 없다면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바로 이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조직사회속에서는 윗사람과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불각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윗사람이 있어야 할 의미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구성원이 윗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있고 한 본당의 사도회장이나 본당신부는 그 본당을 위해서 있으며, 한 교구의 주교는 그 교구를 위해서 있으며, 교황은 온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성하께서는 당신의 호칭으로 서명하시는 경우 당신의 직위를 일컬어 모든 종들의 종인 (Sevovs Servorum) 요안 바오로 2세 라고 서명하시는 것은 으뜸의 직무가 바로 봉사하는 자리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태오 20, 28)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으뜸이 되는 이들의 자제가 무엇인가를 또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으뜸의 직무가 봉사의 사명이 뛰따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경우 으뜸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흔히 권위를 앞세우고 구성원들을 자기의 속물처럼 생각하고 부하들의 입장보다는 자기의 편의나 고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욕만을 만족시키는 으뜸이 있을은 크게 통탄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자는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때, 많은 경우 자기는 남의 수하에 있는 입장에서 윗사람의 처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윗사람이 되고져 하는 경우나 윗사람의 처지에 있을 때는 봉사자의 사명을 망각해 버리는 인간성을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가톨릭센타 관장)



## 기도하는 풀 키퍼

남북대결이 승부차기로 결판을 내던 때, 한국의 풀 키퍼는 골 포스트를 붙잡고 기도를 했다. 공 하나를 놓고 열심히 뛰어 상대방 문에 우겨넣으려 그렇게 기를 쓰고 100분을 노력했어도 승부는 없었다. 정해진 다섯명의 승부차기로도 판가름이 나지 못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 드디어, 골 키퍼는 문에 들어서기 전에 포스트를 붙잡고 말았다. 가슴에 무언가 정함을 주는 살아움직이는 한 폭의 성화였다. 공을 막아내고 기쁨에 질질이 뛰던 그 모습 보다는 그에 앞서 있었던 기도하는 모습이 더 오래 잊혀지지 않음은 왜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초월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하느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대말릴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본다. 더구나 배웠다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적에는 더욱 불쌍 사나울뿐아니라, 측은한 마음까지 느끼게 된다. 휘뚜막만한 지위를 가지고도 온통 세상을 다 움켜쥔듯이 날뛰는 사람들, 내일이면 환하게 들어날 일에도 자기의 인격이야 어찌되던지 그냥 오늘날 넘길려고 드는 알뜰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인가? 11월은 위령성월이기도 하다. 자신을 홀랑 벗겨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다 보자.

「홍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 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 올지도 모른다. 조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 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루가 22장 34-36절)

## 숲 정 이 산책



거북이의 관음경



□ 위령성월 □



# 빠른 세월 가는 인생

김 영 구 신부

“인생은 기껏해야 칠십년, 근력이 좋아야 팔십년, 그나마 거위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 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시편 90편)

우리가 어느때는 이런 생각이 없으리오마는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11월 위령성월이 되면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느낌을 더욱 새삼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세월이 빠른것은 우리 인생이 속히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시편 90편은 모든 시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시중의 하나입니다. 모세의 기도, 혹은 모세의 인생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하느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순간성”입니다. 그 시상이 웅대하고 문장이 미려하고 의미가 심장하였습니다.

이 시는 아름다운 종교시이나 봄날 하늘 높이 즐겁게 부르는 종달새의 노래가 아니라 그보다는 쓸쓸한 가을 고요한 밤에 외롭게 우는 두견의 노래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열숙한 면을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이 시 90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인생의 이런 면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는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아, 돌아가라” 하시오니... 이는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티끌에서 났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백골로 돌아 갑니다. 진토로 돌아갑니다. 5절에 보면,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홍수처럼 쓸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이 뜻은 잡자기 많은 생명이 일시에 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혹은 큰 사고, 큰 구테타, 이러 저러한 참상을 친히 목도하는 인간의 현상입니다. 홍수처럼 쓸어 갑니다. 우리는 “일장춘몽”이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40장의 말과 같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느님의 말씀은 세세에 있느니라” 인생을 잠깐 있다 마르는 풀에 비유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사그라지고 우리의 세월은 한숨처럼 스러지고 맙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후유”하고 숨 한번 내쉬면 그만입니다.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라는 글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귀를 읽을때에 자연 “인생칠십은 고회라고” 하는 유명한 동양의 시인 두보(杜甫)의 명구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량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양에도 “수즉다욕(壽即多辱)”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살면 욕되는 일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에는 내적수고(죄와 고민)와 외적수고(환난과 재난이 많은 세상)가 있습니다. 그러니 슬픔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좀 오래 살면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는데 그 주름살마다 눈물이 흐른 자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인간은 잠깐되는 것이요, 또 수고와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육신면으로 보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인생도 또한 빨리 갑니다.

이러한 인생의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중요한 기도 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12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어떤 곳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곡간이 좁아서 곡간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쌓았습니다. 마음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문 자답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해 쓸 것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워 하자.” 이렇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느님께서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 날을 해일 줄을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만 그런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차기 날이 한정된 줄을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 늘 살 줄 압니다. 그래서 욕심도 많이 부립니다. 자기의 날이 한정되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루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귀중히 쓴다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그 날에 할 일을 그 날에 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귀히 쓸 줄 알고 내 책임을 다 할 줄 아는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인간 일생은 잠깐이니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90편이 주는 교훈입니다.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운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판때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운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순산 ②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보이세)

□ 교육용·가정용·교회용·연주용

당신을 위한

## 써니 (SUNNY) 전자 울건

※ 교우들에게 특별 영가 봉사

☆ 대리점 :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 대 표 : 염 규 철 (요섭) 2-6111





# 웃 기 네

전 갑 균 (라파엘)

“잘 들으시오.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지결인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날날이 해명을 해야 될 것이요. 당신이 한 말에 따라서 당신은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요.” (마태오 12:36-37)

청도와 장흥 군수는 박대통령으로부터 신품종 노풍(魯豐)에 대한 피해 상황을 질문 받고 “병충해가 일부 있으나 방제를 잘 해서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노풍단지에는 피해가 좀 많고 만 품종을 섞어 심은 지역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한 보도가 있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곡창지대라는 김제평야에 가 보았고, 전주근교 가을 들판을 다녀 보았더니, 들판 가운데가 누런색이 아니라 잿빛색과 붉은색이 감도는 부분들이 길다랗게 또는 둥그렇게 이곳 저곳 질펀히 보기 싫게 널려 있다. 「저 잿빛색나는 부분 한 메기는 전부 노풍이고 저 붉은색나는 부분은 벼멸구가 먹은 부분이요」 하면서 농부가 손으로 가리킬 때의 표정은 가을 하늘과 누런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눈자위와 발에 움푹 팬 농부의 주름살이 묘한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올 봄에 말단 행정직원들이 신품종을 심지 않았다고 못자리에 들어가 마구 짓밟아 못쓰게 만들다시피 했지라우. 우리가 그것도 참꼬 다른 품종을 심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울 시안(겨울)은 쪽박 신세 면치 못했거요! 「더럽어서! 한양말기 때 풍장 구라도 하겠다고 이기원 농사만 지어 먹으니까 통 우리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으면 못자리를 밟았어!」 흥분한 어조다.

「요새 뉴우스에 버 피해가 있는 농가는 얼마간 보상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홀깃 바라본다. 아마 농부들의 마음은 아무리 흉족한 보상이라도 잘 자란 벼와 잘 익은 나락모가지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겠지.....

군수들의 말이 조금은 잘못 전한 말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본 나름대로의 좁은 소견으로는 “예 할것은 예가 아닌 아니오요, 아니오 할것은 아니오가 아닌 예”가 되었으리라. 더우기 가관인 것은 지난 D신문 지방판 보도에 의하면 도 집계라고 발표한 것이 전년도보다 무려 7%의 증수가 예상 된다고 발표 되었다. 산출근거야 있겠지만, 그러나 미심적은 바는 여전하다. 농부들과의 대화는 계속된다. 「저기 군메 벼어 짓 곳은 왜 그러지요?」 「예 보기 싫고 속상해서 베 버렸지요. 그 꼴만 보면 속이 상해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그대로 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보상? 웃기네. 웃기지 말라고요. 언제라도 조사하고, 언제 보상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요 않느니 속지...」

모든 것이 뜻대로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는 농부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시킬 것은 약 울은 독사모양이고 벼풀어 줄 것은 서리 맞은 농구렁이처럼요」 긴 한숨이 서리면서 농부는 손바닥에 침을 튀워 빨으면서 낫자루를 힘주어 돌려잡는다. 「언제 다시는 신품종은 팔 수 있으면 안심울겨여! 나를 들으라고 하는지 군담인지 왼손과 오른손이 움지일 때마다 슬픔이 건우어지는 것 같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일까?

천주여! 이 풍요로운 가을에 어이 슬픔을 주셨나이까? 더욱 슬픈 일은 예 할 것은 아니오, 아니오 할 것은 예 이의다.

우리는 당신의 이런 말씀도 믿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옳은 척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보를 다 아십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루가 16:15)

전주 덕진 천주교회 전례 위원장

# 요심이 (275)



## □개업안내

둔율동 천주교 입구에 유미 미용실 설치 교우 여러분의 성원 바람

## 유미 미용실

대표: 최완선(울리바) 전화 ② 3693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엽(하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소아과 전문의 □

## 군산

## 김정승 소아과

□ 영동파출소에서

개북동교회 중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파티마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②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정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

##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 감초당 약국 앞

★양심을 찾자★  
현대 칼라 특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교버)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2차 교리교사 종교 심포지움-11월 11일(토) 오후 3시~12일(일) 오후 3시
2. 대학생 연합회 추계 체육대회...11월 12일(일) 오전 9시 해성학교에서
3.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11월 10일(금) 오후 7시, 장소:중앙성당, 강사:박도식 신부
4. 성령 기도...매주(목) 오후 8시 가톨릭센터 ※ 성령세미나 받으신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전주 시내 분당 성가 연습 변경...매주(화)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 지도-정태현 신부 작오 없으시기 바람
6. J. O. C 전주교구 연합회 정기총회...11월 4일(토)-5일(일) 가톨릭센터에서
7. 호남지구 마리아 벨리 (28일~29일)...참석인원 1,033명 (학생 519명, 일반 514명)  
수입:1,202,670원, 지출:1,126,700원, 잔액:76,970원
8. 쌀 생산자 대화 및 추수감사제...한국 가톨릭 농민회 주최  
 강원지역(13일·원주), 중부지역(16일·대전), 영남지역(21일 합창),  
호남지역(27일 오후 2시-28일 정오, 광주 계림동 성당)  
 김아가다 사랑 (10월 31일) ...김도민교 신부 누나 김스테파노 신부 양모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중양)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오승영  
사도 회장 박희범

1. 프란치스코 3회:5일(일) 오후 1시 30분
2. 환자 영성체:7일(화) 오후 2시
3. 성탄 영성식:12월 16일(토)
4. 주일학교에 관심을...  
시간:토요일 오후 3시
5. 전례담당(공식미사)  
5일:복사-장남수, 김형택, 해설-김문권  
12일:복사-오중원, 김한영, 해설-양학도

지난주 봉헌금:162,340원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10시 미사후
  2. 위령성월:위령기도 미사후 특별
  3. 반상회 및 가정방문  
1반-7일, 2반-8일, 3반-9일, 4반-10일
  4. 신축헌금 현황  
8만-한울순(60,000원), 기타-황문기(30,000원)
- 지난주 봉헌금:32,035원

####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11월은 연령성월:우리보다 먼저가신 선조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드립니다.
  2. 사도회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3. 어머니성가 연습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청년회 모임:매주일 8시 30분 (유치원 교실)
  5. 가정방문 예정:태평동, 금암동(금주간)
  6. 학생회 성가연습 빠짐없이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122,945원

####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1. 애령회·학생회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2. 성모회 월례회:다음주 공식 미사후
3. 중노 1가 가정방문:7일과 9일(2일간) 오후에
4. 환자방문:8일 오후에 합니다
5. 축! 결혼:11일(토) 11시  
신랑-김관수군, 신부-박경자(마리아)양

지난주 봉헌금:62,665원

####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영  
사도 회장 유제상

1. 미사시간 변경  
월~수요일-오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목-오전 6시 30분, 금-오전 6시 30분, 오전 10시,  
토-오후 5시 30분, 7시 30분,  
일요일-오전 6시 30분,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2. 공소미사 안내:매주(목) 오후 8시,  
첫째주(목)-내동리  
둘째주(목)-동산촌, 셋째주(목)-전당리  
넷째주(목)-미산리
3. 젊은이들의 모임:(화)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가, 대화 많은 협조바람
4. 중·고생 성가연습 안내  
매주(토) 오후 4시, 미사 5시 30분
5. 사도회 확대회의  
구역장, 반장, 교문, 공소회장 꼭 참석바람.  
주일 공식 미사후
6. 주일학교 오늘 소품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세요

지난주 봉헌금:92,553원

####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오늘 공식 미사후
2. 성우회 월례회:다음주 공식미사후(장동주형제막)
3. 미수된 봉헌금 봉투에 기재 되었으니 속히 완납바람
4. 보좌신부님 사제관 비품 헌금  
이복수(2,000원), 송글라라(1,000),  
삼회회원(30,000), 익명(20,000)

지난주 봉헌금:129,120원

####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 ※ 11월은 위령 성월
1. 사도회:오늘저녁 미사후
  2. 유아세례:2시 미사후
  3. 가정 봉헌미사:홍남동 정규 가정 신방
- 지난주 봉헌금:139,800원  
교금무:415,000원

####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 및 구역장 정기총회:11월 5일 저녁미사후
2. 성탄 영세준비 예비자 교리  
직장인-매주일 저녁 7시 미사후  
일반인-매주일 10시 미사후
3. 부녀회 모임:주일 10시 미사후 회의실
4. 교무금:교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금주 납입자:황희상(2만5천원)  
유양자·김은자(1만원), 이진희·김용무(5천원),  
김유순·정상호(3천원), 허옥남·조홍욱·최정전·  
김모국(2천원), 김갑내·백갑래(1천5백원),  
송봉래·안기순(5백원)
5. 10월말 분당 운영사항  
수입 교무금-1,351,300원 주일봉헌금-928,392원  
기타-90,034원 계 2,369,726원  
지출 포교활동비-284,090원 인건비-556,000원  
운영비-1,509,275원 계 2,349,365원  
잔액 20,361원

지난주 봉헌금:32,380원